

夜雨庄

这茶室是在纪州德川家的家臣之长三浦长门守的别墅遗址内保存下来的，江户后期(幕末左右)的武士茶室。有 4 张半榻榻米宽的主茶室和 2 张榻榻米宽的小间，还有 3 张榻榻米宽的休息室和洗碗处，没有小门，是很具有武士茶室风格的茶室。

芦鹤庵

这茶室是在昭和 38 年与儿童妇女会馆同时建造的，是故人松下幸之助先生所捐赠的。据说「芦鹤庵」的名称是来自于收藏在万叶集里，诗人山部赤人所写的一首诗：在若之浦 潮涨了 滩没了 仙鹤啼声飞向芦苇荡。

冈阳轩

这茶室是建于昭和 42 年，是作为「芦鹤庵」的等候室而建的茶室，是由以前的市长故人宇治田省三先生命名的。据说是由于建在「冈山丁」的地区，再说这地方又是阳光很充沛，所以被命名为「冈阳轩」。

야우소

기슈 토쿠가와家 家長 미우라 나가토노카미의 별저지(고마즈바라토오리 5 초메)에 보존되어 있던 에도시대 후기(막말경) 무가 차실로 다다미 4장반의 주 차실, 2장의 작은 방 3장의 입구쪽 방, 부엌이 있고 낮은 출입구가 없고 무가 차실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카쿠앙

1963 년에 아동여성회관과 동시에 설치된 것으로 고 마즈시타 코노스케씨가 기증한 차실입니다. “로카쿠앙”이란 명칭은 만요슈(시집)에서 야마베노 아카히토가 읊은 “와카노우라니(와카노우라에) 시오미치코레바(만조가 되면) 가타오나미(갯벌이 없어지므로) 아시베오사시테(갈대가 자라는 바닷가를 향하여) 타즈나키 와타루(두루미가 소리내며 날아간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고요켄

1967 년에 “로카쿠앙”의 대기실로서 설치된 차실로 고 우지타 쇼조 시장이 명명한 것으로 설치된 장소의 지명 “오카야마초” 그리고 햇빛이 닿는 곳이라 “고요켄”이라고 이름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